

# 상무지구 주차난 이유 있었다

## 주차장 용지에 영화관·병원 등 다중시설 허가내줘

### 도시공사, 수익 높여 민간 분양 원인 제공

공공시설용지인 주차장 용지에 영화관이나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이 들어서면서 택지개발지역 내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다. 택지를 개발해 분양하는 공공기관이 수익을 높이기 위해 주차장 용지를 민간에 분양하고, 민간업체는 택지 전체를 위해 공급돼야 할 주차장 용지를 건물부지나 전용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면서 택지지구 내 주차공간이 사실상 사라져버렸다.

6일 광주시와 광주시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262만1천865㎡인 상무 1지구의 면적 중 도로나 광장, 녹지, 주차장 등 공공시설용지 중 주차장 용지인 8개 필지 1만8천573㎡가 모두 민간에게 분양됐다. 이는 법정 택지개발지역 내 주차장용지인 전체 면적

의 0.6%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나 택지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공시설용지 중 하나인 주차장 용지를 분산배치하도록 한 당초 취지와는 달리 이들 주차장 용지에는 다중이용시설인 영화관이나 병원 등이 들어서 오히려 불법 주·정차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

실제로 상무 1지구 내 한 병원은 1천788㎡의 주차장 용지에 병원 건물을, 또 다른 영화관은 본관 맞은 편 2천77㎡의 주차장 용지에 별관을 건립해 운영하는 등 민간에게 분양된 주차장 용지는 모두 전용 주차장 및 건물로 활용되고 있었다.

민간업체들은 주차장 용지가 상업용지에 비해 값이 싼데다 건축물 연

면적의 70% 이상만 주차용으로 사용하면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어 경제적으로 이를 사들였다. 게다가 상무지구 내 용지를 분양·공급한 광주시도시공사도 토지감정가로 공급해야하는 공공기관 대신 입찰을 통해 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민간에게 분양, 결국 상무지구 주차난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다.

시 관계자는 “택지 내 공공시설용지인 주차장 용지는 반드시 공공기관에게 분양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민관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주차장이 있어야할 곳에 다중이용시설이 들어서므로 택지지구내 도로가 주차장화되는 등 주차난이 심화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영화관은 아예 외부인들의 주차장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주변 경장적으로 이를 사들였다. 게다가 주차비보다 비싼 1시간에 3천 원을 주차비로 책정, 외부인 주차를 막고 있어 인근 주차금지구역에는 대부분 불법 주·정차가 극심한 상황이다.

광주시는 뒤늦게 이 같은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동림 2지구와 효천지구 등에 대해서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전체 건축물 연면적에서 70%를 확보하도록 한 규정을 강화해 각 층마다 70%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기준을 강화하면 민간업체에서 주차장 용지의 매입을 주저하게 되고, 이를 광주시나 각 구청이 사들여 공공주차장을 조성해 택지 내 주차난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비상경보기 달고 성매매

## 광주 상무지구 안마시술소 입주 둘 구속

### 구매자 등 4명 입건

광주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1일 불법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송모(41)씨 등 2명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또 성매매 여성과 성 구매자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 등은 지난 2007년 1월 17일부터 최근까지 광주시 서구 치경동 한 건물 5층에 F안마시술소를 차려놓고 전단지 등을 보고 찾아온 강모(25)씨 등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뒤 화대비 명목으로 18만 원을 받아왔기는 등 수백 차례에 걸쳐 5억4천100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시각장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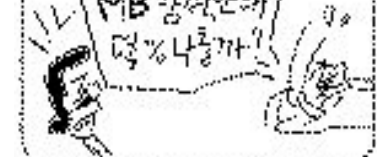
박모(34)씨를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뒤 시각장애인 안마사 3명과 성매매 여성 4명 등 8명을 고용해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년 전에도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다가 같은 혐의로 적발됐다.

이들은 특히 건물입구와 승강기, 카운터 등 4곳에 CCTV를 설치하는 한편 안마실에서 밀실로 연결되는 벽면에 리프트 컨트론타를 원격 조종이 가능한 비밀 문을 설치한 뒤 미술작품으로 위장, 경찰의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또 각 필지마다 비상등을 달아 카운터에서 발로 밟을 눌러 단속사실을 알려주고 일일장부를 찢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 나원침 (7818) 김종두



## 오락실 압수 돈 빼돌린 혐의 경찰관

### 금품갈취 사이비기자 구속

# “증거 불충분” 무죄 선고

### 광주지법 항소심

사행성 오락실 단속 과정에서 압수한 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우룡)는 1일 오락실 단속 중 압수한 돈 가운데 일부를 훔쳐거나 업주에게 반환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경찰관 김모(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2007년 8~9월 사행성 오락실 단속 중 압수한 돈 가운데 400만원을 계산대에 넣어둔 증거를 없애고, 다른 오락실에서는 420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오락실 업주를 감싸는 대가로 4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으나, 지난해 6월 1심에서 직무유기죄(증거인멸)만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이날 2심에서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 등으로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향후 유·무죄 다툼과 함께 복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1심 판결 뒤 해임을 통보받고 이의를 제기했으며, 경찰은 판결 확정 때까지 소청심사를 보류한 상황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주지법 특수부(부장검사 최길수)는 1일 공사현장을 돌며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광주·전남지역 모신분 분부장 박모(55)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2005년 1월 말부터 4년여간 지역 공사현장에서 51차례에 걸쳐 1천2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 절도범, 공소시효 착각 귀국 ‘덜미’

○자신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난 것으로 착각해 해외 도피생활을 접고 한국에 돌아온 ‘덜미’

○전남지방경찰청은 1일 국내에서 차량을 훔친 뒤 5년 2개월 가량을 해외에서 생활한 김모(47)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3년 6월께 박모(여·37)씨의 신타페 승용차를 훔친 뒤 같은 차종의 사고차량 반호관을 부착해 1천350만원에 판매하는 등 3차례에 걸쳐 4천만 원 가량을 챙긴 뒤 2004년 2월 18일 우즈베키스탄으로 도주.

○김씨는 지난 4월 1일 절도죄 공소시효 5년이 경과한 것으로 판단, 한국으로 돌아왔으나 ‘범죄자가 도피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할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현행 법에 따라 결국 석고강.

최경호기자 choice@



### ‘통일 아기 호랑이’ 3남매 국제 혈통족보 이름 올려

지난해 6월 남·북한 호랑이 사이에서 태어난 ‘통일 아기 호랑이’ 3남매(사진) 독도(♂), 영토(♀), 지킴(♀)이 국제 호랑이 혈통족보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동물원은 최근 독일 라이프치히 동물원이 통합 관리하는 국제 호랑이 혈통족보에 통일호랑이 3남매가 이름을 올려 총 52마리의 한국호랑이가 ‘시베리안 호랑이(Siberian tiger)’로 혈통상 정통성을 인정받았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국제 혈통 족보에 올려진 호랑이는 서울동물원 24마리와 이미 세상을 떠난 88올림픽 호랑이 호풀이와 호순이 등이 포함돼 있다.

혈통족보에 등재되면 각각의 호랑이가 고유번호를 갖게 돼 국제적인 종 교환이 가능해진다.



### 운전자 안전띠·휴대전화 단속

광주지방경찰청과 전남지방경찰청이 1일부터 한 달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운전 중 안전띠 미착용과 휴대전화 사용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에 들어갔다.

광주지방경찰청과 전남지방경찰청이 1일부터 한 달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운전 중 안전띠 미착용과 휴대전화 사용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에 들어갔다.

## 신안 등서 앵숙 밀경작 59명 적발

전남 서남해 지역에서 앵숙(일명 양귀비)을 재배해온 밀경작 사범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1일 앵숙 재배 사범 특별단속 결과 남모(여·59)씨 등 59명을 적발, 이 가운데 40

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앵숙 1천500여 그루를 압수했다.

서해청에 따르면 남씨는 신안군 자신의 텃밭 비닐하우스에서 앵숙 146 그루를 몰래 키우다 적발되는 등 27

밭이나 정원 등에서 앵숙을 밀경작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번에 검거된 밀경작 사범 대부분이 노인들인 데다 관상용이나 상비약 등을 위해 밀경작해 온 것으로 확인돼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지역별로는 목포와 완도가 각각 28명(856그루), 24명(574그루) 적발됐다.

목포=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 시골 식당에 사행성 게임장

#### 담양경찰, 4명 검거

담양경찰은 1일 시골 빈 식당 건물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김모(44)씨 등 4명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달

25일부터 최근까지 담양군 무정면의 빈 식당 건물을 빌린 뒤 사행성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한 PC 40여 대를 설치한 뒤 2천600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승합차를 이용해 광주에서 손님들을 싣고 가 1만원당 100코인을 PC에 입력해 주고 게임 후 남은 코인을 현금으로 반환해 주는 방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양=노정훈기자 cjob17@

**성연**

한국 대표 전통 문화 공연

세계 각국 순회공연

특수 전통 공연 예술

전통 예술의 정수를 담은 공연

한국 전통 예술의 정수를 담은 공연

전통 예술의 정수를 담은 공연

한국 전통 예술의 정수를 담은 공연